

# 지방

서울특별시	409
부산광역시	413
대구광역시	419
인천광역시	422
광주광역시	425
대전광역시	430
울산광역시	433
세종특별자치시	439

경기도	442
강원도	446
충청북도	450
충청남도	453
전라북도	457
전라남도	461
경상북도	465
경상남도	469
제주특별자치도	473

2016  
연합연감

## 지방

## 서울특별시

市花 : 개나리      市鳥 : 까치  
 市木 : 은행나무    심벌 : 해치  
 시청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장 : 박원순(朴元淳)



## 개관

**연혁** 서울은 삼국시대 때 백제의 도성 위례성, 통일신라 때는 9주 중 하나인 한산주, 고려시대에는 양주→남경(1067년)→한양부(1308년)로 개편됐다가 조선시대 태조 3년(1394년)에 수도를 송악(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기면서 명칭도 한양부에서 한성부로 바뀌었다.

조선 500년 동안 한성부로 불리다가 1910년 일제침략과 함께 경성부로 개칭됐고 1945년 광복과 함께 현재의 명칭인 서울로 변경됐다.

1946년에는 서울특별자유시로 승격됐고, 1962년엔 내무부 관할에서 국무총리 직속으로 변경됐으며, 1995년 금천, 강북, 광진 등 3개 구가 분구돼 현재는 총 25개 구에 1천29만7천여 명이 사는 명실상부한 거대도시로 탈바꿈했다.

**면적·행정구역** 총면적은 605.21km<sup>2</sup>로 남한 전체 면적의 0.61%를 차지하며 행정구역은 2015년 12월 현재 25개 구, 424개 동이다.

**인구·가구** 2015년 12월 말 현재 총 인구는 1천29만7천138명으로 내국인이 1천2만2천181명, 외국인은 27만4천957명으로

## 서울특별시 면적·가구·인구

(2015년 12월 31일 현재)

구분	면적(km <sup>2</sup> )	가구	인구(명)
합 계	605.21	4,189,948	10,297,138
종로구	23.91	72,645	163,822
중구	9.96	59,321	134,329
용산구	21.87	107,512	247,909
성동구	16.85	126,714	305,065
광진구	17.06	158,353	375,180
동대문구	14.21	159,941	373,824
충량구	18.50	176,390	418,620
성북구	24.58	190,973	469,560
강북구	23.60	141,088	334,426
도봉구	20.70	136,903	353,241
노원구	35.44	219,768	578,221
은평구	29.70	203,410	502,578
서대문구	17.61	135,770	323,105
마포구	23.84	171,480	398,351
양천구	17.40	179,512	489,010
강서구	41.43	238,952	595,691
구로구	20.12	172,321	454,604
금천구	13.02	103,847	256,167
영등포구	24.53	167,863	417,811
동작구	16.35	170,495	412,774
관악구	29.57	249,191	529,031
서초구	47.00	173,007	451,258
강남구	39.50	237,373	581,760
송파구	33.87	256,611	667,480
강동구	24.59	180,508	463,321

집계됐다. 2014년에 비해 총인구가 7만2천455명(△0.69%) 감소했다. 내국인 가구 수는 418만9천948가구로 2014년 대비 4천228가구(△0.1%) 감소해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2.39명이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506만3천550명, 여자는 523만3천588명으로 여성인구 100명당 남성인구는 96.7명이다.

지역별 인구를 보면 강남지역 11개 자치구의 인구가 531만8천907명(51.65%)으로 강북지역 14개 자치구의 인구 497만8천231명(48.35%) 보다 34만676명이 많다.

## 재정

**개요** 2016년도 예산총액은 27조5천38억원으로 2015년도에 비해 1조9천854억원(7.8%)이 증가했다. 예산총액 27조5천38억원 중 일반회계는 19조1천694억원으로 2015년도 대비 5.0%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8조3천344억원으로 2015년도 대비 14.8% 증가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의 전출금을 뺀

### 2016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6년 본예산	2015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계	275,038	255,184	19,854	7.8
일반회계	191,694	182,578	9,116	5.0
시세	141,258	136,225	5,033	3.7
세외수입	15,654	12,830	2,824	22.0
지방교부세	1,217	1,007	210	20.9
국고보조금	29,351	28,522	829	2.9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214	3,994	220	5.5
특별회계	83,344	72,606	10,738	14.8
자체수입	31,975	31,188	787	2.5
국고보조금	8,544	7,389	1,155	15.6
타회계전입금	32,687	26,759	5,928	22.2
공채 및 차입금	10,138	7,270	2,868	39.4

### 2016년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6년	2015년	증감액	증감률(%)
예산규모	275,038	255,184	19,854	7.8
일반회계	191,694	182,578	9,116	5.0
특별회계	83,344	72,606	10,738	14.8
회계간 전출입 : 3조2천687억원 일반→특별 : 2조7천844억원, 특별→특별 : 4천843억원				
순계규모	242,350	228,427	13,923	6.1
법정의무경비 : 7조617억원 자치구 : 3조4천723억원, 교육청 : 2조4천523억원, 채무상환 1천42억원, 기금·전출금 등 : 1조229억원				
실집행규모	171,382	157,810	13,572	8.6

순계예산 규모는 24조2천350억원으로 2014년도 대비 6.1% 증가했다.

분야별 자원배분(순계기준)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 8조3천452억원(34.4%), 자치구지원 분야 3조7천914억원(15.6%), 교육청지원 분야 2조4천839억원(10.2%), 도로·교통 분야 2조658억(8.5%), 공원·환경분야 1조8천283억원(7.5%), 도시안전 분야 1조1천398억원(4.7%), 문화관광 분야 6천319억원(2.6%), 산업경제 분야 4천799억원(2.0%),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분야 3천286억원(1.4%), 일반행정 분야 4천821억원(2.0%), 행정운영경비 1조6천522억원(6.6%), 재무활동비 8천754억원(3.6%), 예비비 1천75억원(0.7%)이다.

**재정 지출방향** 첫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요 역점사업에서의 성과 가시화를 위해 재정적으로 뒷받침한다.

둘째, 확보 가능한 자체 수입 및 국고보조금 등을 감안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우선 중점을 둔다. 경제 불확실성 영향을 최소화하고 세입변동지표 및 징수율을 적용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한다. 추가적인 소요재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셋째, 국고보조사업의 적극적인 발굴 및 자원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 정부 예산 분석으로 신규지원 가능 사업을 발굴하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서울시 핵심사업 반영을 위해 노력한다. 넷째, 꼼꼼한 재정운용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맞춤형복지, 창조경제, 도시재생에 대응해 기존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가적 재정수요를 최대한 흡수하고 대규모 SOC사업은 마무리에 초점을 두되, 안전, 도시재생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SOC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자한다.

## 중점 추진사업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않아 법정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서울형 기초보장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생계급여, 교육급여(15년까지 지원),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2015년(2015.11.30.기준) 추진 실적은 총 10만7천392명으로 맞춤형급여 수급자 7만2천328명 서울형 기초보장대상자 1만2천901명 기타 타복지 지원 2만2천163명을 발굴해 지원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163개소를 확충했으며 어린이집 부족지역을 중심으로 확충하면서 미설치 동을 13개 동으로 줄여 동별 지역불균형을 해소했다. 어린이집을 확충하면서 시가 개발한 '비용절감형 서울모델'의 주요 방식은 민관연대(기업, 종교단체, 학교, 개인 등 민간부지), 공공기관(유희공간 활용), 공동주택으로 건물 매입을 통해 신축하는 방식보다 비용은 1/5 저렴하다.

**공공의료 강화** 보건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시보건지소 확충(22개소), 시민건강포인트 도입 운영과 금연도시 서울,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을 통해 예방적 시스템을 강화했다. 시민이 시민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서

올시 인구7%, 70만 목표)에 7만3천 명에게 교육을 진행했고, 야간과 휴일 진로기관도 운영(46개소)했다.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인 보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주차 환경개선을 위해 46개 전통시장에 349억원을 투입했고, 영세 상인들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79개 시장에 172억원의 마켓론을 지원했으며, 상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상인아카데미를 운영했다.

또한 전통시장을 지역경제 생태계중심이자 사회적 활력의 장소로 육성하기 위해 권역별 거점시장 5개 시장을 선정해 상인 및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동협약'을 기반으로 시장특성에 맞는 신시장 모델 육성사업 '전통시장 다시살림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또한 대형마트, SSM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정착을 통해 상생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물류센터 건립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했다.

**민생침해 근절대책** 대부업, 상조업 등 민생침해 10대 분야에 대한 사전예방, 단속, 사후피해구제의 전방위적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민생침해 경보(5회 발령), 민생침해 예방교육 및 홍보 등 사전예방에 힘썼고, 대부업체 854개소 현장점검을 포함해 상조업체(22개소), 직업소개소(2천 12개소), 부동산중개업소(7천440개소) 등 민생업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126건(채무금액 약 3억740만8천원)의 사건을 처리했고, 무료법률상담, 민생침해온라인신고시스템 '눈물그만', 민생보호상담센터 등을 통해 민생침해 10대 분야 피해구제에 만전을 기했다.

**도시농업 활성화** 자투리텃밭 4천2구획 6만5천836㎡ 조성, 상자텃밭 2만1천892개, 옥상텃밭 226개소 1만1천241㎡ 조성, 싱싱텃밭 109개소 7천86㎡ 조성, 학교농장 30개교 9천760㎡, 희망서울 친환경농장 12개소를 운영해 도시농업 실천공간을 확대했다. 시민 교육·전문가 양성과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도시농업 박람회 개최, 농부의 시장 운영, 설·추석 명절 서울장터 운영, 도시농업체험장을 조성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공공서비스 분야에 필요한 일자리를 발굴해 시민생활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참여자에게는 다양한 일 경험을 제공해 민간일자리로 이행을 도와주는 뉴딜일자리사업은 청년, 여성, 장애인 등 45개 사업, 총 1천715개 일자리를 제공했고, 참여자의 직업전환을 위한 직무·전문교육을 사업별 1인당 평균 45시간 실시했다.

**관광·MICE 활성화** 서울의 역사와 문화자원, 자연경관 등을 활용해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관광안내소 운영, 다국어 안내표지판 개선, 도보관광해설코스 등을 운영했다. 아울러 관광현장의 현대의식 제고를 위해 민간주도의 스마일 캠페인을 전개했다.

또한 민간부문과 함께 한류, 의료관광 등 서울만의 강점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 2018년까지 국제회의 350건을 유치해 세계 3위의 국제적 컨벤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MICE 인프라의 연차별 확충 및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유니크 메뉴 발굴, MICE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했다.

**'걷는 도시, 서울' 추진** 쾌적한 거리, 안전한 거리, 편리한 거리, 이야기가 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보행전용거리(전일형 45개소, 요일제 26개소, 시간제 17개소)를 추진, 총 8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행환경개선지구 8개소, 생활권 보행자우선 도로(23개소)를 지정·운영 중이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초등학교 앞 시간제 차량 통행제한(81개소)을 실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1천704개소), 도심부 및 생활권 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서울역7017 프로젝트** 서울역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형태로 설계되어 1970년에 준공된 서울역고가 시설물 노후화로 안전상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15년 12월 차량이 전면통제됐다. 45년 동안 자동차 도로로 이용되어 온 서울역고가를 '철거' 대신 '사람길'로 재생시켜 도심 속 시민들에게 휴식과 사색을 제공하고, 송례문과 한양도성, 남대문시장으로 연결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서울길로 만들어질 것이다.

**서울시 열린정부 3.0 조성** '서울 열린 데이터광장'을 통해서 서울시민만 아니라 25개 자치구의 공공데이터를 확대 개방하고 민간과 공공부분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골목상권 등 16개의 과제를 분석해 정책활용과 대시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활용 모바일투표 엠보팅(mVoting) 시스템을 구축해, 2015년 한해동안 42만 명(누계 : 61만 명)이 참여하고 70여 건(누계 : 126건)이 실제 정책에 반영됐다.

**마을공동체 회복**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관련법규와 기본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10개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주민이 직접 만드는 마을공동체 실현의 토대를 구축했다. 마을사업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증가해 2015년도에만 1천128건이 신청됐고 712건을 지원했다. 부모커뮤니티, 공동육아 등 다양한 마을사업이 추진됐으며 20개 자치구에 중간지원조직이 설치되어 주민들의 다양한 마을활동을 지원했다.

**시민주거 안정화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를 운영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 해결에 힘을 보탤고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임대보증금 융자,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을 통한 지원 강화로 주거안정을 도모했다. 민선5기(2010.7.1~2014.6.30)에 공공임대주택 8만 호(7만9천360호) 공급 사업을 추진해 최종 8만1천624호를 공급해 목표를 달성했고, 민선6기(2014.7.1~2018.6.30)에 공공임대 6만 호와 민간임대 2만 호를 공급하는 새로운 임대주택 8만 호 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뉴타운 재개발 대책** 2012년부터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시행에 따라, 주민 스스로 사업 추진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해 많은 구역이 해제를 선택하거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을 해산하는 등 진로를 결정했다. 나머지 진로결정을 못한 잔여구역에 대해 면밀하게 사업추진 동향을 파악해 정상추진구역, 정체구역 및 사업추진이 어려운 구역 등으로 분류해 정상추진구역에 대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정체구역은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갈등 해소 및 진로결정을 지원하며, 사업추진이 어려운 구역은 해제와 재생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안전 통합상황실** 서울의 모든 재난·교통·총무 등 서울안전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안전 통합상황실이 시청 지하 3층에 위치하고 있다. 홍수·산사태 등의 재난대응, 교통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을지연습 등 총무상황 발생 시 전시행정 전환 등 도시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기능을 수행한다. 472㎡ 면적에 최대 112명의 동시근무가 가능한 규모로서 지진·전쟁 등 유사시에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

도록 내진특등급, 화생방 방호시설 1등급 시설로 설계 및 시공했다.

**원전 하나 줄이기** 지속가능하고 에너지 공급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효율화·절약으로 2014년 6월까지 원전 1기를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2단계 사업으로 2014년 7월 '에너지살림도시, 서울'을 시작했다. 2단계 핵심목표는 2020년까지 전력자립률 20% 달성과 온실가스 1천만 톤 감축 등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2015년까지 온실가스 200만 톤과 95만 TOE의 에너지 생산 및 절약성적을 거뒀다. '에너지살림도시, 서울'은 정량적 목표와 더불어 에너지 자립과 나눔, 참여라는 3대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 산업

**상업** 2015년 12월 말 현재 대규모 점포는 총 466개(대형마트 63, 백화점 32, 전문점 23, 쇼핑센터 34, 복합쇼핑몰 11, 그 밖의 대규모 점포 303)이며, 전통시장은 총 351개로 종로구 26개, 중구 36개, 영등포구 25개 등이 분포하고 있다.

**제조업** 2015년 12월 말 기준 종사자 1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 수는 4천589개로 11만5천94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연간 출하액은 31조6천259억원이며 13조8천689억원의 부가 가치를 창출했다. 사업체 수는 2014년 기준 4천269개보다 320개 증가, 종사자 수는 11만725명에 비해 4천369명 증가했고 출하액은 31조5천440억원에 비해 819억원 증가했다.

## 사회

**주택** 2014년 말 현재 주택 수는 총 360만3천751호로 2013년 354만7천725호에 비해 5만6천26호가 늘어났다. 주택보급률은 2013년 97.5%에서 0.4%p 증가한 97.9%로 집계됐다. 종류별로 보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이 126만5천784호(35.1%), 아파트 161만3천849호(44.8%), 연립주택 14만2천704호(4.0%), 다세대주택 55만6천979호(15.5%), 기타 2만4천435호(0.7%)다.

**교통** 2013년 교통수단별 부담률은 대중교통 65.9%(버스 27.1%, 지하철·철도 38.8%), 택시 6.8%, 승용차 22.9%, 기타 4.4%로 집계됐다. 자동차는 2015년 말 기준 305만7천 대, 그중 자가용 승용차는 256만대로 2013년 238만7천대로 약 17만3천대 증가했다. 2015년 말 기준 중앙버스전용차로 연장은 119.3km이며, 일일 대중교통 이용객은 1천14만1천명(2014년 말 기준)으로 2008년(1천22만4천명) 대비 8.9% 증가했다.

**환경** 대기오염도를 살펴보면 1990년 연평균 0.051ppm이었던 아황산가스(SO<sub>2</sub>)의 경우 친환경 연료 공급정책의 영향으로 2014년 0.006ppm, 2015년 0.005ppm으로 환경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다. 또한 일산화탄소(CO)도 1990년 2.6ppm에서 2015년 0.5ppm으로 떨어져 2003년 이후 0.5~0.7ppm으로 선진국 수준의 양호한 농도를 나타내고 있다.

미세먼지(PM-10)는 2012년 41 $\mu$ g/m<sup>3</sup>에서 동북아 등 외부로부터 미세먼지 유입 증가 등으로 2013년 45 $\mu$ g/m<sup>3</sup>, 2014년 46 $\mu$ g/m<sup>3</sup>, 2015년 46 $\mu$ g/m<sup>3</sup>로 증가했고 초미세먼지(PM-2.5)는 2014년 24 $\mu$ g/m<sup>3</sup>에서 2015년 23 $\mu$ g/m<sup>3</sup>로 감소했다. 오존(O<sub>3</sub>)의 농도는 2014년 0.023ppm에서 2015년에는 0.022ppm으로 감소했고 이산화질소(NO<sub>x</sub>) 농도는 2015년 0.032ppm으로 2014년 0.033ppm 보다 낮아졌다.

**폐기물 처리** 2014년 말 현재 1일 평균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9천613t으로 그중 6천424t(67%)이 재활용, 2천263t(23%)은 소각, 926t(10%)은 매립되고 있다. 1인당 하루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0.93kg이다.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환경미화원은 3천416명, 차량 1천619대, 손수레 570대, 중장비 24대, 자치구 직영 환경미화원은 인원 2천458명, 차량 1천88대, 손수레 1천151대, 중장비 55대가 있다.

서울 시내에 강남, 노원, 마포, 양천 등 4곳에 자원회수시설이 있는데, 2006년 33%였던 가동률이 2015년(11월기준)에는 85%까지 높아져 연간 67만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각열 138만Gcal(기가칼로리=10억칼로리)을 회수하고 4천300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했다. 이는 연간 18만 가구의 난방이 가능하다.

**공원·녹지** 공원녹지 현황은 남산공원을 비롯해 모두 2천782개소 170.8km<sup>2</sup>로 서울시 전체 면적 605.21km<sup>2</sup>의 28.1%에 달하며, 1인당 공원면적은 16.37m<sup>2</sup>, 개발제한구역은 149.61km<sup>2</sup>이며, 도심 녹지대는 총 6천323개소 1만4천48km<sup>2</sup>에 달한다. 현재까지 개발한 걷고 싶은 서울 길 총길이는 151노선 854km이다.

**자연생태** 서울시는 자연생태지역을 법정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은 한강방설, 둔촌동, 방이동, 탄천, 진관동, 암사동, 고덕동, 청계산원터골, 한인릉, 남산, 불암산삼육대, 창덕궁후원, 봉산, 인왕산, 성내천하류, 관악산, 백사실계곡 등 모두 17개소 4.82km<sup>2</sup>이고,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은 우면산(두꺼비 서식지), 수락산(고란초 자생지), 진관(양서·파충류 서식지), 난지한강공원(양서, 파충류 서식지) 보호구역과 중랑천하류, 청계천하류, 안양천하류 철새보호구역 등 총 7개소 1.46km<sup>2</sup>이며, 지속적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보건·후생** 2015년 말 현재 의료기관은 총 1만6천437곳이며, 총 병상 수는 8만4천307개이다. 종합병원이 56곳, 병원 212곳, 의원 7천703곳, 요양병원 94곳, 노인병원 8곳, 정신병원 6곳, 결핵병원 1곳, 치과병·의원 4천713곳, 한방병·의원 3천571곳, 조산원 5곳이다.

의약품등 판매업소는 2만5천866곳으로 약국이 5천44곳, 의약품도매업소 739곳, 한약도매업소 188곳, 한약업사 61곳, 약업사 1곳,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5천760곳, 의료가기판매임대업소 1만3천485곳, 의료가기수리업소 588곳 등이다.

## 교육·문화

**교육** 2015년 10월 현재 유치원 888개(공립 197개, 사립 691개), 초등학교 599개(국공립 560개, 사립 39개), 중학교 384개(국공립 275개, 사립 109개), 고등학교 318개(국공립 118개, 사립 200개), 특수학교 29개(공립 10개, 사립 19개), 전문대학 9개, 대학교 38개(국공립 4개, 사립 34개), 대학원 396개, 기타 21개교 등 총 2천682개 교육기관이 있다.



**문화재** 2015년 12월 말 현재 1천581건이 있으며,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가 1천68건, 시지정문화재가 513건이다. 2014년에 비해 국가지정문화재 10건과 등록문화재 3건, 시지정문화재 10건 등 총 23건이 증가했다.

국가지정문화재로는 송례문, 원각사 10층 석탑 등 국보 157건을 비롯해 흥인지문 등 보물 601건, 사적 68건, 명승 3건, 중요민속문화재 40건, 천연기념물 13건, 중요무형문화재 42건, 등록문화재 144건이 있다. 시 지정문화재로는 유형문화재 342건, 기념물 38건, 무형문화재 46건, 민속문화재 30건, 문화재자료 57건이 지정돼 있다.

**문화시설** 2015년 12월 말 박물관 120곳, 공연장 347곳, 미술관 40곳, 공공도서관 197곳 등 총 704개의 문화시설이 있다. 대표적인 문화시설로는 경희궁 터 안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세종문화회관, 남산골 한옥마을, 북촌 한옥마을, 운현궁 등이 있다.

**문화행사** 종묘대제(5월), 사직대제(9월), 조선조 과거 재현(10월) 등 다양한 전통문화 행사가 있으며, 서울드림페스티벌(8월), 국악한마당(10월) 등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시민문화한마당 축제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2015년에 13번째 열린 하이서울 페스티벌은 '길에서 놀자'라는 슬로건으로 주요 광장(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과 도심을 연결하는 거리 곳곳에서 시민참여 프로그램, 나눔 캠페인, 환경 캠페인, 덕수궁 돌담길 예술시장 공동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또한, 서울빛초롱축제(구, 서울등축제)는 11월 6일부터 17일간 '빛으로 보는 서울관광'이라는 주제로 청계천에서 열려 총 250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리에 진행됐다. 이외에도 서울문화의 밤, 서울세계불꽃축제, 서울사진축제 등의 축제가 연중 펼쳐져 서울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자치구별 주요 축제로는 2015 고고(古古) 종로문화페스티벌(종로, 9월), 중구민 어울림한마당(중구, 10월), 충무공 이순신장군 탄생기념문화제(중구, 4월), 한국축의 열 명무전(용산, 10월), 도봉산 서원마을축제(도봉, 10월), 한성백제문화제(송파, 10월) 등이 있다.

**관광** 관광사업체는 호텔 283개소, 여행업 6천893개소 등 모두 9천7개소로 관광호텔은 특급 64개소, 1~3급 호텔 117개소, 가족호텔 11개소, 호스텔 24개소 등으로 나뉘며 전체 4만 266개의 객실이 있고, 기타 관광사업체로는 도시민박업 706개소, 유원시설업 53개소 등이 운영 중이다.

## 의회활동

### 원구성

〈의장〉 박래학

〈부의장〉 김인호, 강감창

〈의석분포〉 더불어민주당 73, 새누리당 29, 무소속 3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13명, 행정자치위원회 11명, 기획경제위원회 11명, 환경수자원위원회 11명,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1명, 보건복지위원회 11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0명, 도시계획관리위원회 13명, 교통위원회 13명, 교육위원회 13명으로 총 10

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의안처리** 조례안 356건, 예산 및 결산안 9건, 동의·승인안 75건, 건의안 20건, 규칙안 1건, 결의안 41건, 의견청취 15건, 청원 8건, 기타 50건 등 총 57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행정사무감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총 3천363건을 시정·처리 요구했다.

**건의문, 결의문** 청년발전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2015년 9월 18일) 등 총 20건의 건의안과 41건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기타 의정활동** 2015년 한 해 정례회 2회(제261회, 제264회), 임시회 5회(제258~260회, 제262~263회) 등 총 7회 123일간의 회기를 운영했고, 4회 12일에 걸친 일문일답 형식의 시정 질문에서는 총 65명의 의원이 질의에 나서 시정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 부산광역시

市花 : 동백꽃

市鳥 : 갈매기

市木 : 동백나무

캐릭터 : 부비(BUM)

시청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시장 : 서병수(徐秉洙)



## 개관

**연혁** 부산은 해운대의 좌동·중동·청사포의 후기 구석기 유적과 영도 동삼동의 조개무지 등 신석기유적의 발견으로 보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신석기문화와 청동기문화는 일본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철기시대에는 철을 생산해 수출했다.

삼한시대 동래지역에는 거칠산국·장산국 등의 부족국가가 있었다. 이후 동래지역은 신라와 가야의 경계로 해상교통의 요충지였다. 삼국시대에는 신라의 거칠산군이였다가, 경덕왕 때 동래군이 됐다. 이후 대중현을 동평현으로 고쳐 동래군의 영현으로, 갑화량곡현을 기장현으로 고쳐 동래군의 속현으로 삼았다.

고려시대에는 영동도 동래군이였다가 이후 울주군의 속현인 동래현이었다. 고려 말에는 국방상 중요성이 높아져 읍성을 쌓기 시작했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부산진이 설치됐고, 태종 7년(1407년) 부산포를 개항해, 항거왜인들에게는 왜관 내에서만 무역을 허락했다. 또한, 동래도호부 승격 등 여러 차례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고, 국방정책 강화로 경성좌도수군절도사영이 설치됐다.

1876년 2월 부산항이 근대 국제 무역항으로 개항됐고, 1895년에는 동래관찰부로 승격됐다. 1900년 초 이후 바다 매축과 시가지 조성, 항만 축조가 이뤄졌고, 1905년 경부선 철도가 개통됐다.

1914년 4월 부제(府制)가 실시됐고, 1925년 4월 도청이 부산